

현대과학과 동양사상의 접점에서 발견한 대안적 사상

《카오스와 불교》 펴낸 김용운 교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74)는 평생 수학 곁에서 불교 사상을 접해왔던 독특한 지적 편력으로 일가를 이뤘다. 그리고 그가 천착한 카오스 이론은 지적 편력을 반추할 마지막 귀착지다. 김교수가 최근 펴낸 《카오스와 불교》는 불교 중심의 동양 사상과 현대과학으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이 하나되는 과정을 살피고, 21세기 새로운 지(知)의 세계를 구상하고 있다.

수학자, 공리 없는 세계를 만나다

김교수가 카오스 이론에 천착하게 된 것은 그가 수학으로 학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리의 있고 없음으로 가치와 존재가 결정되는 학문 속에서 공리와 현상의 자리바꿈은 실로 신천지를 만난 것과 다름없었다.

“카오스 이론은 지금까지 해온 수학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리가 없었죠.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출발해 공리가 없는 것은 수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발달로 공리 없이도 현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공리 없이 사실만 보고 추적해가는 것이죠. 수치해석학을 공부하면서 1959년에 컴퓨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리를 법칙 삼아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상에서 공리를 찾아내 이론화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혼돈’이라 번역하는 ‘카오스’는 단순히 무질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늘 진행형인 상태 자체를 말한다. 카오스가 중심으로 삼는 것도 현상 자체다. 변화의 과

현대과학과 불교사상의 접점을 모색해온 김용운 교수가 인류의 미래를 구상한 《카오스와 불교》를 펴냈다. 김교수는 현상에서 공리를 찾아내 이론화하는 카오스 이론과 불교에서 설교하는 절대무아의 가르침에서 공통점을 발견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고등종교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문명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어갈 것을 역설한다.

정을 살피 그 과정 속에 끼어드는 작은 요소들이 결정론적 세계관을 통해 예상한 결과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추적한다.

그가 카오스 이론을 체화하는 데 바탕이 된 것은 불교다. 그는 태생적인 불자인데, 어머니가 불교신자였고 그 자신이 무여(無如)라는 법명으로 젊은 날 승려를 꿈꾸기도 했다. 기독교로 치자면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불자이기에 정해놓고 다니는 절도 속한 종파도 없지만, 읽고 새기며 아끼는 불경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불교에 대한 식견은 넓고 깊다.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불교 교리는 그의 마음과 서가에 지금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불교와 카오스 이론을 견줘 설명하는데 쓰인다.

“현상을 바라보고 추적하는 것이 바로 불교와 같습니다. 절대무아, 즉 ‘본질이 없다, 있는 현상만 보라, 뒤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카오스 이론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본질에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나 샘족의 다른 종교는 바로 요소환원주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불교는 상호의존해서 생기므로 현상만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현상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입니다. 성장과정에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카오스 이론이나 제행무상을 주장하는 불교 모두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 현상파악으로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측시대는 인류문명사의 정신혁명기

그는 수학의 맞은편에서 카오스 이론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불교를 체계화하며 자연스레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수학에서 역사학으로 이어지는 학문의 여정 속에서 야스퍼스의 ‘추측시대’를 만났다.

“야스퍼스가 처음 언급한 추측시대는 기원전 6세기를 중심으로 성립된 세계 각 문명권의 고등종교 생성기를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 힌두 철학,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인도 바라문의 철학 등 보편 사상이라 할 종교와 사상이 비슷한 시기에 발흥한 것이죠.”

그는 야스퍼스의 현상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추측시대의 도래, 사상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 '추축시대는 인류문명사의 정신혁명기' 라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왜 그때 종교라는 사상과 제도가 생겼는지 혹은 생겨야 했는지를 그는 철기문명의 도입에서 찾았다. 철기는 무척 쓸모 있는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게 했고, 농기구의 발달로 잉여농산물이 축적되고 소유는 권력화해 약탈을 위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철기는 농기구라는 '이기' (利器)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기' 로 언제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무기를 지닌 원숭이나 늑대 같은 짐승은 싸우는 중에 상대가 꼬리를 내리면 전의를 상실한다. 그러나 토끼처럼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부류는 한 번 싸움을 시작하면 피투성이가 돼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무기가 있는 짐승은 싸움을 멈춰 종족을 보존하고, 무기가 없는 짐승은 패싸움의 습성이 없거나 싸움을 압도할 정도로 개체수를 늘려 스스로 씨를 말리는 일은 없다.

철기시대에 인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살상무기를 얻었다. 또한 상대의 항복에 전의를 상실하는 본능이 없기 때문에 말살과 초토화에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할 지혜가 필요했다. 이런 지혜의 필요성 때문에 종교와 사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인류의 존속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압력이 아닌 지극히 고등한 사상이 생긴 시기에, 그는 인류문명사의 '정신혁명기' 라 이름붙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무기와 전의는 현세에 더 힘을 얻고 다양해져 20세기에 벌어진 세계대전이나 세계 각지의 분쟁만으로도 인류말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여기서 '제2의 추축시대' 를 구상한다. 야스퍼스가 말하는 추축시대를 거치며 그때 이룩한 지혜를 통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인류의 현재와 미래가 다시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온 다음날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런 테러를 예상하고 이 글을 썼지만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러의 수단은 작은 전술 핵무기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지 비행기 테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테러는 자신이 죽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은 테러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인자로 작용해 환경에 충격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2의 추축시대 열 필요성 제시해

고등종교를 바탕으로 2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지탱해온 인간이 또 다른 탐욕과 오만으로 다시금 말살과 초토화를 기도하는 모습은 세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지역분쟁은 언제든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전인류 말살이라는 참혹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가 이제는 서로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 질시와 의혹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제 인류생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런 위기 의식과 전망은 그의 지적 편력 속에서 카오스와 불교의 접점을 찾게 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길어 올린 공통점을 과학기술과 변질된 종교가 지배하는 현세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과거에 쌓인 인연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인한 현재는 결정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내 의지로 연기와 인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생명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나' 라는 존재는 의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한없이 신뢰하는



사이언스북스/A5신/266면/9000원

낙관론자다. 개개인, 나비의 날갯짓으로 폭풍이 인다는 '나비효과'의 중요한 인자, 요소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카오스 이론과 불교의 접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과정을 살피는 데는 그 길에 끼어드는 예상하지 못한 작은 요소와 그 요소가 일으키는 결과의 변혁이 모두 포함된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혼돈' 상태, 즉 세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훌륭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믿음은 '제2의 추축시대'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차정신기자

김용운 교수의 21세기 전망

책 뒷부분에 조심스레 꺼내놓은 그의 21세기 전망은 내용과 가능성에서 주목할 만하다.

1.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에 강한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 가능성.
2. 새로운 식량 또는 슈퍼 품종의 등장으로 크게 변화할 생태계. 품종의 소수화, 환경의 격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를 인류.
3. 서로 접근하는 종교와 과학.
4. 특히 한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사조.
5. 영어의 제2국어화와 한자의 복권 가능성. 노동시장의 국제화로 민족의 구성 요소가 달라질 가능성. 국제화의 원심력과 함께 민족화의 구심력이 동시에 발생해 사회적 카오스를 가속화.
6. 한반도 통일정부의 수립.
7. 한반도 영세중립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공동체 형성.